

## 일반논문

# ‘내 집’ 만들기 주거불안계급 청년 여성의 공간전략\*

Making ‘My home’: spatial strategies of young women as housing precariat

권민지\*\*

불안계급 논의는 불안정한 노동자들을 하나의 계급으로 명명하여 새로운 정치적 주체 형성의 가능성을 제시하였고 노동 시장 불안정과 연결된 심리적 양상을 드러냈다. 하지만 기존의 논의는 불안계급을 형성하는 요인으로 젠더를 고려하지 않았으며, 불안정성의 양상을 강조하여 불안계급의 주체성을 간과하였다는 한계를 지닌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본 연구는 불안정성(precariety)과 불안계급(precariat) 개념을 이용해 20대 초반~30대 초반 청년 여성들의 주거 경험을 분석하여 이들을 주거불안계급으로 개념화하고, 청년 여성들이 주거불안계급을 형성하는 요인, 이들이 경험하는 주거불안의 양상과 공간전략을 조명한다. 주거불안계급은 경제적 불안정성과 도시 공간의 젠더 편향으로 인해 편안함과 안전함을 느끼며 사생활을 보호받을 수 있는 주거 공간의 부재로 불안을 느끼는 집단이다. 신자유주의로 인한 경제적 불안정성 증가와 한국의 기부장적 역사·문화적 맥락이 결합하면서 청년 여성들은 주거불안계급을 형성하고 있는데, 생애과정의 규범적 이행을 당연시하는 한국 사회에서 이들의 주거불안은 일시적인 문제로 인식되어 주거복지 정책에서도 사각지대에 위치한다. 그러나 한편으로 청년 여성들은 주거불안계급의 위치에 안주하지 않고 이동 전략, 공동 주거, 대인적 장소 만들기 등 다양한 공간전략을 실천함으로써 독립 주거 공간 형성을 위해 노력하는 주체적인 면모를 보인다. 본 논문은 그동안 논의의 주변부에 머물렀던 한국의 청년 여성들이 경험하는 주거 불안정성에 대한 이해를 확장하고, 주거복지정책에 성 주류화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 본 연구는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BK21플러스사업(4-Zero 지향 국토공간창조사업단, 서울대학교 지리학과)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 결과임.

\*\* 서울대학교 지리학과 석사과정(M.A. Student, Department of Geography, Seoul National University), gmj2000@snu.ac.kr.

주요어: 불안계급, 주거불안계급, 공간전략, 청년, 여성

## 1. 서론

본 연구는 불안정성(precarity)과 불안계급(precariat) 개념을 이용해 한국 청년 여성들의 주거 경험을 분석하고, 공간전략을 통해 이들이 보이는 주체성을 조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신자유주의의 영향으로 인해 노동 시장은 유연해졌고, 불안정한 노동의 보편화로 사회 전반에 걸쳐 불안정성이 확산되었다. Standing(2011)은 이러한 사회 변화를 설명하면서 불안계급(precariat)이라는 새로운 사회 계급이 등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불안계급은 두 단어 ‘불안정한(precarius)’과 ‘노동자(proletariat)’의 합성어로, 경제적 불안정성을 특징으로 하며, 안정적 노동 계급인 샬러리아트(salarariat)와 대비되는 개념이다(Standing, 2012). 불안정성 및 불안계급 논의는 주로 생산 관계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는데, 이를 삶의 전반의 불안정성에 대한 논의로 확장하는 과정에서 최근 전반적인 삶의 기반이 되는 주거 측면에서의 불안정성에 대한 연구가 특히 주목 받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불안정성 및 불안계급과 주거불안계급에 대한 대부분의 논의는 젠더에 의해 발생하는 차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유교 문화권에 속하며, 긴 군사독재 기간의 영향으로 가부장제가 뿌리 깊은 한국의 문화·역사적 맥락에서, 여성들은 여전히 전통적으로 주어 진 성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노동 시장, 도시 공간, 주거 공간 등에서의 차별이 이러한 인식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이로 인해 청년 여성들은 독립 주거 공간 형성에 어려움을 느낄 뿐만 아니라 가족 주거지에서도 불안정성을 경험한다. 주거불안계급의 형성에서 젠더가

〈표 1〉 연구 참여자의 특징

연구 참여자	연령	직업	학력	주거형태
A	22	대학생	고졸	월세
B	23	대학생	고졸	가족 주거지
C	23	대학생	고졸	전세
D	24	서비스직(비정규직)	초대졸	월세
E	25	영업관리직(비정규직)	대졸	월세
F	25	서비스직(비정규직)	대졸	가족 주거지
G	25	언론인(정규직)	대졸	월세
H	25	서비스직(비정규직)	초대졸	가족 주거지
I	25	학원강사(정규직)	대졸	가족 주거지
J	25	대학생	고졸	월세
K	26	무직(취업준비)	대졸	가족 주거지
L	26	보건진료직(비정규직)	대졸	가족 주거지
M	27	보안(무기계약직)	대졸	가족 주거지
N	31	무직(취업준비)	석사	자가
O	31	교원(무기계약직)	대졸	월세

중요한 요인이 되는 것이다. 또한 기존의 연구는 불안계급이 경험하는 불안정성의 양상에 초점을 맞춰 이들의 주체성을 간과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불안계급 개념을 이용해 청년 여성들의 주거 경험을 분석함으로써 다음의 질문에 대답하고자 한다.

어떠한 요인들로 인해 청년 여성들은 주거불안계급이 되었는가? 그리고 이들은 현재 처한 상황에 어떤 공간전략을 이용해 대처하고 있는가? 본 연구는 청년 여성들을 주거불안계급으로 개념화한다. 주거불안계급이란 경제적 불안정성과 도시 공간의 젠더 편향으로 인해 편안함과 안전함을 느끼며 사생활을 보호받을 수 있는 주거 공간의 부재로 불안을 느끼는 집단이다. 한국의 청년 여성들이 주거불안계급을 형성하게 된 요인을 분석함으로써 이들을 둘러싼 사회 구조를 검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들의 공간전략을 살펴봄으로써 새로운 공간정책의 주체로서 주거불안계급의 가능성을 탐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 이를 위해 2017년 11월~2018년 5월 사이 주거 경험에 대한 심층 면접을 시행했다. 연구 참여자는 지인을 통해 소개받은 20대 초반~30대 초반의 청년 여성 15명으로, 스노우볼링(snowballing) 방법으로 연구 참여자를 모집했다. 면접 장소는 주로 주거지 근처 카페였고, 30분~60분 사이 심층 면접을 각 1회씩 실시했으며 필요한 경우 추가 인터뷰를 진행했다. 연구 참여자의 동의하에 인터뷰 내용을 녹음했고, 녹취하여 연구 자료로 활용했다. 연구 참여자들은 경제적인 이유로 가족이 있는 집에 거주하거나 가족으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고 있었으며, 이들 중 취업자는 대부분 비정규직 종사자였다.

1997년과 2008년 두 차례의 경제 위기 이후 사회에 진출하게 된 청년 여성들은 과거와 다른 사회적 환경과 생애과정의 이행 방식 및 독립에 대한 인식으로 인해 이전 세대의 여성들과 다른 주거 불안정성을 경험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여전히 근대 정상 핵가족 규범과 가부장적 인식이 지배적인데, 청년 여성들은 가족의 주거 공간에서 미혼 여성으로서 섹슈얼리티를 규제받으며, 전통적인 성 역할에 따라 재생산 노동 및 감정 노동을 수행한다. 게다가 부모 세대는 이들에게 생애과정의 규범적 이행, 즉 경제적 독립과 결혼을 통한 새로운 가족 형성을 기대하고 요구한다. 따라서 청년 여성들은 가족 내 권력 관계와 가부장적 문화에서 벗어나 독립 주거 공간을 마련하고 싶어 한다.

그러나 여성은 취업 직후 출산으로 인해 일을 그만두거나 휴직할 것이라는 인식이 강해 청년 여성들은 괜찮은 일자리를 얻기가 청년 남성보다도 어려운 실정이다. 취업한 이후에도 성별 임금 격차가 큰 한국에서는 여성이 저임금 노동을 벗어나기가 쉽지 않다. 차별적인 노동 시장과 목돈이나 대출 없이는 높은 월 임대료를 감당해야 하는 한국의 주택 시스템의 결합은 청년 여성들이 부모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기간을 증가시키고 있다. 경제력에 의한 부모의 권력은 집안에서 더욱 가시적으로 작동하게 된다. 그러나 사회적으로 청년 여성의 주거 불안정성은 일시적인 문제로 인식되어 주거복지 정책에서도 사각지대에

위치한다.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청년 여성들은 주거불안계급을 형성한다. 그러나 이들은 주거불안계급의 위치에 안주하지 않는다. 독립 주거 공간 또는 대안적 공간 형성의 주체로서 집 밖의 공간에서 장소 만들기 또는 이동 전략을 이용하는 등 다양한 공간전략을 실천한다.

본 연구는 신자유주의로 인한 경제적 불안정성 증가와 한국의 가부장적 역사·문화적 맥락이 결합하여 한국의 청년 여성들이 주거불안계급을 형성하게 되었음을 말하면서 이러한 상황에서도 다양한 공간전략을 통해 주체적으로 대안적 주거 공간을 형성하려는 청년 여성들의 이야기를 살핀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의 2절부터 6절이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먼저 2절에서는 불안계급 이론을 검토하고 청년 여성의 주거 경험에 적용함으로써 주거불안계급 개념을 제안한다. 3절은 한국의 청년 여성들을 주거불안계급으로 개념화하고, 이들이 주거불안계급을 형성하게 된 요인을 주거 경험을 중심으로 검토한다. 4절에서는 주체로서 독립 주거 공간과 대안적 공간을 형성하기 위한 청년 여성들의 공간전략을 살펴본다. 이러한 공간전략은 가족 주거지 외부에서 장소 만들기, 이동 전략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났다. 결론에 해당하는 5절에서는 청년 여성을 주거불안계급으로 개념화하는 것의 이론적·정책적 함의를 제시한다.

## 2. 주거불안계급과 공간전략

본 연구는 신자유주의의 확산과 세계화(globalization)로 인해 변화하는 현대 사회의 특징을 표현하는 불안정성(precariety)과 불안계급(precariat) 개념을 청년 여성의 주거 경험을 분석하기 위한 이론적 틀로 이용하고자 한다. 불안정성 개념은 1970~1980년대에 빈곤과 관련된 개념으로 학계에서 이용되기 시작했는데(Pitrou, 1978b), 경제적인 지형이 바뀌면서 열심히 노동하면서도 빈곤 상태에 놓여 있는 ‘노동 빈곤층(working poor)’

이 등장했고, 이들의 특징인 ‘불안정성’이 고용 상태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논의가 전개됐다(Waite, 2009). 규격화된 대량생산을 특징으로 하는 포디즘 시대에는 노동자들에게 장기적인 고용이 보장되어 있었고, 이들은 정해진 노동 조건하에서 일을 함으로써 안정적인 삶을 기대할 수 있었다. 그러나 서구 자본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1970년대 등장한 신자유주의의 영향으로 노동 시장은 크게 개편되었다. 신자유주의적 정책은 산업 기반을 제조업에서 변화가 심한 금융과 서비스업으로 바꾸었고(장봄·천주희, 2014), 자본에 대한 정부의 규제가 완화되면서 노동 시장에 대한 자본의 통제력과 자본의 이동성이 높아져 노동 시장은 유연해졌다. 따라서 과거에 특수한 형태였던 불안정한 고용은 현대 사회의 새로운 표준이 되었다(Waite, 2009).

Standing(2011)은 현대 사회의 불안정한 노동자들이 ‘불안계급(Precariat)’을 형성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불안계급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산업과 관련된 시민 자격” 의제로 추구했던 노동 시장 보장, 고용 보장, 소득 보장 등 일곱 가지의 노동 관련 보장이 결여된 사람들로 구성된 계급으로, 공통적으로 불안(anxiety), 소외(alienation), 아노미(anomie), 분노(anger) 등 4A로 표현되는 심리 상태를 보인다(Standing, 2011). Standing(2011)은 특정한 하나의 집단이 아닌 다양한 대상 집단이 불안계급에 진입할 수 있음을 주장함으로써 불안정하고 유연한 노동자들을 하나의 정체성인 ‘불안계급’으로 명명했고 사회 변화를 위한 새로운 정치적 주체 형성의 가능성을 열었다. 그의 논의는 또한 노동 시장 불안정과 연결된 심리적 양상을 조명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후 불안정성과 불안계급 논의는 주로 생산 관계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는데(Frase, 2014; 궤노완, 2012; 이광일, 2013), 도시에서 삶의 불안정성은 생산 관계에 의해서만 규정되는 것은 아니다(Castells, 1977). Foti(2004)는 안정적인 직업의 감소뿐만 아니라 주거, 부채, 복지 제공과 인간관계 형성을 위한 가용 시간 등의 문제 또한 불안정성의 양상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여 불안정성 논의의 대상을 삶의 문제 전반으로 확장했

다. 한 분야에서의 불안정성은 다른 분야에서의 불안정성을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Banki, 2013) 고용 형태 이외에도 다차원적인 불안정성의 속성을 조명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불안계급 논의를 공간으로 확장하고자 하는 시도가 최근 증가하고 있다(Banki, 2013; Waite, 2009; 박미선, 2017; 박인권, 2017; 신혜란, 2017; 이영아, 2017). 이영아(2017)는 불안계급 개념을 공간으로 확장해 불안 공간 개념을 제안하고, 도시 빈곤층 주거지에 이 개념을 적용해 분석했다. 박인권(2017)은 도시에서 사회적·공간적 배제가 사회적 약자들의 삶을 불안정하게 만들어 불안계급 형성의 객관적 조건을 만들어내며, 계급의식의 형성을 방해하는 역할을 한다고 주장했다.

다양한 공간 중에서도 특히 삶의 전반적 안정성의 기반이 되는 주거 공간의 불안정성에 대한 연구가 최근 활발해지고 있다. 현재까지 주거 불안정성에 대한 연구는 주로 서구 사회에서 자가 소유의 안정성 하락에 대한 연구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Colic-Peisker et al., 2015; Finnerty and O’Connell, 2017; Greenop, 2017; Köppe, 2017). Köppe(2017)는 주택 소유가 더 이상 사회적 안전망으로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주택 소유자 사이에도 주거불안계급이 형성되고 있음에 주목했고 Colic-Peisker et al.(2015)은 고령화와 낮은 임금 등으로 인해 은퇴 이후 자산으로 여겨졌던 자가를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어 노년에 자산 빈곤에 시달리고, 일생에 걸쳐 주택을 임대하는 집단이 점차 증가해 더 이상 주택 소유가 복지의 수단이 되지 못하는 현실적 문제를 제시했다. 한국 사례를 통한 주거불안에 관한 연구로는 1인 청년 가구를 주거불안계급으로 정의하고 이들의 주거 양상과 미래 사회에 대한 영향을 고찰한 박미선(2017)의 연구가 있다.

그러나 불안계급 및 주거불안계급에 대한 선행 연구 대부분은 젠더가 생성하는 차이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한계를 지닌다. 국내외 페미니스트 관점 논의에 따르면(Johnston and Vallentine, 1995; Rose, 1993; 김두나, 2008; 백미록, 2015), 여성들에게 집은 안전하고, 다양한 정체성이 보호

받으며 소속감을 느끼는 공간을 의미하며, 물리적 주거 공간의 존재가 반드시 주거 안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인간은 물리적 공간 속에서 타인과 관계를 맺음으로써 사회적 관계를 만들어나가며 이렇게 만들어진 사회적 관계 속에서 생활하게 되기”(안숙영, 2011: 11) 때문이다. 젠더의 차이는 공간에서 경험하는 사회적 관계의 차이를 생산해내고, 젠더는 주거불안계급의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요소가 된다. 또한 불안계급 개념을 제안하며 Standing(2011)이 새로운 정치적 주체 형성의 가능성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연구는 불안정성의 양상과 불안계급을 형성하는 사회 구조적 요인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불안계급의 정치적 실천과 주체성을 충분히 드러내지 못했다. 정치적 주체성을 언급한 경우(곽노완, 2012; 이광일, 2013)에도 가능성에 대한 이론적 논의에서 더 나아가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사회의 불안정성이 증가한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새로운 기회가 증가함을 의미하며(Lewis et al., 2015), 불안계급은 오히려 임시적 노동을 이용하는 등의 생존 전략을 구사한다. 구조주의적 접근은 불안계급의 주체적인 면모를 조명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한계를 지닌다.

선행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본 연구는 먼저 Standing(2011)이 제안한 불안계급 개념을 통해 청년 여성들의 주거 경험을 분석함으로써 젠더에 의해 달라지는 주거 불안정성의 양상을 조명하고 이들을 주거불안계급으로 개념화한다. 청년 여성들의 다양한 주거 경험을 통해 주거 공간 내부와 도시 공간에서 권력 관계의 작동을 살펴볼 수 있고, 이는 젠더와 깊이 관련 있는 심리적 불안정성의 양상을 드러낼 수 있게 한다. 또한 주체로서 대안적 주거 공간을 형성하기 위한 청년 여성의 공간전략을 살펴봄으로써, 주거불안계급을 형성하면서도 이들이 한편으로는 공간적 실천을 통해 삶을 재구성하고 있는 주체적인 존재임을 주장한다. 일부 연구에서 불안계급의 집단적 저항 사례와 정치적 주체 형성의 가능성에 대해 언급한 바 있는데(곽노완, 2012; 이광일, 2013; Waite, 2009), 본 연구는 집단적 저항 형태의 정치적 행위뿐 아니라 개인



차원에서 일상적으로 독립 주거 공간 형성을 위해 취하는 공간전략 또한 주체적인 실천으로 본다.

과거 사회적 통념에 따르면 청년 여성은 물리적 주거 공간을 소유한 남성과 결혼함으로써 기존의 가족으로부터 독립할 수 있었고, 청년 여성은 독립 주거 공간 형성의 주체가 되기 어려웠다. 현재도 사회적 인식은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Mitchell(2010)에 따르면 사회적 공간은 신체를 통하여 경험되며, 동시에 공간의 생산은 특정한 종류의 신체를 생산하는 데 관여한다. 즉, 행위자는 자신의 신체가 여성의 형상을 하고 있는지, 남성의 형상을 하고 있는지에 따라 같은 행위를 하더라도 다른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다. 남성 1인 가구의 형성은 생애과정의 이행을 위한 독립으로 인식되는 반면, 여성 1인 가구 형성은 독립으로 인식되지 않는다. 결혼하지 않은 여성은 가족 관할로 인식하는(송계숙, 2010) 한국 사회에서 여성의 섹슈얼리티를 감시할 가족이 없다는 것은 그 여성을 쉽게 성적으로 대상화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미혼의 여성이 1인 가구를 형성한 경험이 있는 경우 성교 경험이 많은 것으로 인식되어 흠결이 될 수 있다. 여전히 전통적 성 역할 가치를 추구하는 사회에서 성교 경험이 많다는 것은 남성의 경우 능력 있음을 의미하고, 반대로 여성에게는 문란하다는 낙인과 비난의 근거가 되기 때문이다(Choi et al., 2015).

그럼에도 현재 청년 여성들은 독립 주거 공간 형성의 주체가 되기 위해 다양한 공간전략을 구사한다. 이들에게 독립은 ‘새 가족의 공간, 아내와 어머니로서의 공간’ 형성이 아닌, ‘나의 주거 공간’의 마련이다. 2015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에 따르면 미혼여성의 경우 결혼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비율은 31%뿐이다(이삼식, 2015). 청년 여성들은 이동 전략, 공동 주거, 대안적 장소 만들기 등의 공간전략을 통해 새로운 사회적 관계를 모색한다. 백미록(2015)은 청년 여성들이 독립 주거 공간의 형성을 시도하는 것을 도시 공간의 주체로서 행하는 공간 실천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필리핀 결혼 이주여성들

의 대안적 ‘홈(home)’으로서 공동체를 연구한 김정선(2012) 또한 이주여성들의 장소 만들기(place-making)를 공간을 주체적으로 형성하는 과정으로 보았다. 신혜란(2017)은 반복적 이동과 장소 만들기를 개인들의 공간 실천으로 보았으며, 불안사회에서 개인이 행하는 공간전략이 불안정성과 상호 작용하는 것을 이론적으로 검토했다.

### 3. 어디에도 없는 ‘내 집’: 주거불안계급으로 등장한 청년 여성

현재 한국에서 청년 여성들은 주거불안계급을 형성하고 있다. 가족 내부에서 성 역할과 결혼 요구, 경제력에 의한 권력 관계를 벗어나기 위해 독립 주거 공간을 마련하려고 하지만, 금융 위기 이후 어려워진 경제 상황과 젠더 편향적 노동 시장, 높은 임대료와 주택 가격, 젠더화된 도시 공간 등 다양한 요인들이 이를 불가능하게 만든다. 이 장에서는 한국의 청년 여성들이 주거불안계급을 형성하게 된 다차원적 요인을 검토하고 이들이 경험하는 주거불안의 양상에 대해 논의한다.

청년 여성들은 먼저 집안에서의 권력 관계로 인해 가족과 함께 거주해온 집 안에서 불안정성을 느끼게 된다. 연구 참여자들은 생애주기에 걸친 주거 경험을 서술하며 공통적으로 청소년 시기 이후 가족과 함께 사는 주거 공간을 ‘우리 집’이 아닌 ‘부모님 집’이라고 표현했다. 부모의 집에 거주하는 청년들에게 ‘집’은 부모의 시선과 규범이 지배하는 공간이며, 청년들은 공간에서 허용 가능한 행위를 규정하는 부모의 암묵적인 규칙과 권력을 인식하게 된다(White, 2002). 즉, 집은 부모와의 사회적 관계로 조성되는 공간성을 가지고 있다. 이들이 집에 들어서면서 ‘딸’이라는 정체성이 중요한 위치를 점하게 되는데, 청년인 아들에게는 부과되지 않는 것들이 청년인 딸에게 부과되는 경우가 존재했다.

부모님한테 주거비를 받는다는 것에 대해 부담을 가지고 있어요. 부모님 입장은 다들 돈 벌어서 대학 다니는데 너는 우리 돈을 받아서 생활하니까 우리 의견을 따라야 한다, 권력으로 작용하고 있어요. ... 내가 이렇게 투자를 해줬는데 너는 우리에게 이렇게 무심하게 대해? 감정 노동에 대한 요구도 있어요(연구 참여자 A).

마땅히 갈 데가 없기 때문에 집에서 살고 있는데 재생산 노동을 주로 담당해요. 제가 많이 하는 편이죠. 남동생들은 그냥 별로 안 하고 가끔 쓰레기 버리러 가지만 저는 설거지, 빨래, 요리 다 해요(연구 참여자 F).

딸이니까 자기편이라고 생각을 하고... 감정쓰레기통이잖아요, 딸은. ... 그리고 엄마는 아들과 딸에 대한 기준 잣대가 달라요. 엄마가 저에 대해 더 화를 많이 내요. 나였으면 쌍욕이 날아 왔어야 하는데 엄마가 오빠에 대해서는 그냥 참는 경우가 많아요. 오빠도 알고 있어요, 나한테 더한다는 걸(연구 참여자 O).

한국 사회는 성인이 된 딸이 부모의 고충에 공감하길 바라고, 정서적 교류를 기대한다. 이는 ‘친구 같은 딸’이라는 관용적 표현에서 드러난다. 연구 참여자들은 주로 가족 내부의 갈등, 집안의 부채나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이야기를 꾸준히 들어왔으며, 경제적 사정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부채감과 불안감이 더욱 커졌다고 이야기했다. 그러나 경제적으로 지원을 받는 상황이라 전통적인 젠더 역할에 따라 가사노동과 감정 노동을 담당할 것을 암묵적으로 요구하는 부모에 따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집안에서 청년 여성에게 요구되는 것은 이뿐만이 아니다. 통금과 자취 반대 등 섹슈얼리티에 대한 규제와 정상 핵가족 규범에 대한 요구는 부모와의 지속적인 갈등으로 이어졌고, 이들이 주거 공간에서 심리적으로 더욱 불안함을 느끼게 했다.

부모님과과의 충돌이 많이 생겼어요. 통금 문제가 제일 컸고. 지금은 늘려서 1시인데. 그 시간에 들어가도 “늦게 들어왔네”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하셔가지고. 난 통금을 맞춰서 들어왔을 뿐인데 늦게 들어왔단 얘기를 들어야 하나까. ... 결국은 통제하고 싶은 거잖아요. 어떤 수단으로든 (연구 참여자 B).

자취하고서 집에 돌아오니까 독립에 대한 강요가 심해졌어요. 하지만 독립 비용을 대줄 수는 없으니 그냥 나가라. ... 결혼해서 나가라는 식의 말을 많이 들었어요. 남자가 집을 가지고 올 테니 결혼을 해라(연구 참여자 F).

몇 년 전까지만 해도 9시 10시도 안 됐는데 “어디냐”, “언제 들어오냐” 유독 그러셨어요. 오빠는 밤 12시에 친구 만나러 나간다고 해도 “술 조금만 마시고 들어와라” 하는데(연구 참여자 O).

유교 영향권인 한국 사회에는 아직도 “딸은 출가외인”, “청년 여성은 미혼(未婚)”이라는 전통적 인식이 만연하고, 결혼하지 않은 여성은 독립적인 개인이 아닌 가족 관할로 인식된다(송제숙, 2010). 젊은 여성에게는 통금 시간이 정해져 있는 것이 사회적으로 자연스러운 일로 인식된다. 성리학적 전통에 따르면 부모는 결혼하지 않은 딸의 섹슈얼리티를 감독 및 보호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Janelli and Janelli, 1992). 딸이 가족 관할에서 벗어나는 것은 결혼 제도에 편입되거나, 그것을 거부하고 완전한 경제적 독립을 했을 때 가능하다. 결혼 제도에 편입된다는 것은 곧 가족이 있는 집이 아닌 다른 주거지로 이전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남성이 새 가족을 위한 주거지를 마련해오는 것을 당연시하기 때문이다.

연구 참여자들은 결혼을 하지 않을 경우 대출을 받기 어렵고 주거 복지 혜택을 받을 가능성도 현저히 낮다고 말했는데, 그럼에도 이들

중 결혼을 계획하는 경우는 없었다. 연구 참여자들은 ‘가족이 사는 집’이 아닌 ‘나만의 공간’으로서의 집을 필요로 했다. 연구 참여자 중 한 명은 결혼할 의사가 과거에 있었으나 경제적인 이유로 포기했고, 두 명은 성소수자로 한국의 제도 하에서 결혼을 할 수 없었으며, 이외의 참여자들은 가부장적인 결혼 제도를 거부하기 위한 정치적인 이유로 비혼(非婚)<sup>1)</sup>을 결심했다. 사회조사 결과에 따르면 25세에서 35세의 비혼 여성은 1990년에 비해서 80% 증가했다(김혜영 외, 2010). 결혼을 해서 독립해야 한다는 규범은 청년 세대에서 해체되었으나 기성세대와 사회 전반적 인식은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다. 이 때문에 청년 여성들은 가족과 함께 있는 공간에서 섹슈얼리티 규제와 정상 핵가족 규범의 지배를 그 어떤 공간에서보다 강하게 받는다고 느끼고 있었다.

가족 내부 압박으로 인해 기존의 주거 공간에서 불안정성을 경험하고 있음에도 청년 여성들이 자력으로 독립 주거 공간을 마련하기 어려운 이유는 금융위기 이후 노동 시장의 불안정성 확산과 더불어 여전히 지배적인 가부장적 인식으로 인한 노동 시장 내부 성차별에서 찾을 수 있다. 신자유주의의 영향으로 인해 노동이 유연해진 데다가 금융위기 이후 고용 시장 악화로 청년들은 취업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이전보다 긴 시간을 투자해야 하며, 정규직이거나 연봉이 높은, 소위 괜찮은 직업을 얻을 가능성은 점점 감소하고 있다. Standing(2011)은 세계적 불안정성, 노동 시장 유연화의 대표적인 사례로 한국의 비정규직 문제를 언급한 바 있다. 그런데 사실상 한국의 노동 시장 유연화는 여성 노동 시장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조순경, 2011), 생산 관계에서 불안정성은 젠더에 따라 큰 차이가 나타난다.

주변 사람들을 보면 대학 나온다고 다 취업이 되는 것도 아니고. 취업

1) ‘비혼(非婚)’은 결혼 제도에 대응해 고안된 페미니스트 용어로, ‘미혼’이라는 언어가 결혼한 상태가 아닌 경우 반드시 생애주기 내에 결혼할 것을 전제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을 담고 있다(노미선, 2008).

한다고 다 만족스러운 것도 아니고... 일단 주변 지인들 얘기만 들어도 진짜 스펙 좋은 여성들 진짜 많은데, 왜 그런데서 일하고 있는지 모르겠는 사람이 너무 많고. 아니 당장 알바자리만 찾아도 성별무관 써놓고 남자만 채용하질 않나(연구 참여자 B).

여성 후보자를 뽑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팀장들이 다 남자가, 여성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잘 몰라요. 본인이 (대처를) 못하니까 그 여성에 대해서 역시 여자는 안 된다고 표현하는 거고(연구 참여자 E).

여성의 학력은 높아졌고 직종은 다양해졌지만,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 경영자와 노동자 중 전자는 남성이고 후자는 여성인 경향이 여전하다(신경아, 2016). 산업화 시대에 형성된 핵가족 규범과 남성 생계부양자 모델은 여전히 한국 사회에 만연해 여성들을 유연한 노동력으로 인식하고 있다. 외환위기 이후 기업의 내부노동시장은 더욱 좁아져 진입하기 어려워졌고, 여성들은 내부노동시장 안에서도 비교적 유연화된 직종군에 종사할 가능성이 높다(이순미, 2015). 동일 직급에서도 여성과 남성의 임금 격차가 드러나며, 시간당 성별임금격차는 30.7%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이다(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8). 청년과 여성이라는 정체성이 교차하면서 이들은 노동 시장에 진입하기 위한 채용 및 승진 과정 등에서 성 차별을 경험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계속해서 공공기관과 다수 대기업에서 남성의 성적을 상향 조작해 채용하는 등의 성차별형 채용 비리가 드러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연구 참여자들 또한 모두 고학력임에도 불구하고 단 두 명만이 정규직에 해당했다. 연구 참여자들은 기성세대의 여성들보다 높은 교육 수준에 맞는 직장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이러한 노동 시장의 젠더 편향을 직면하면서 연구 참여자들은 극심한 좌절감과 미래에 대한 불안감에 시달렸으며, 현재도 지속적인 불안감을 안고 살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여자들이 돈 버는 게 다 거기서 거기잖아요. …(월급) 평균이 120~130만 원이라는 이야기도 해요. 대학생 직장인 할 것 없이 경제적인 부담이 많이 되니까 30대 되어도 룸메이트 구하는 경우가 많고, 세어하우스 거주 많이 해요. 여자가 20대 때 아무리 잘 벌어도 승진이 되지 않다 보니 30대 때에는 남성에게 역전되죠(연구 참여자 A).

이러한 상태에 목돈이 필요한 한국의 주택 시스템이 결합하면서 청년 여성들이 자력으로 독립 주거 공간을 마련하기는 더욱 어려워진다. 대부분의 연구 참여자들은 높은 월 임대료를 감당하며 살기에는 부족한 임금 때문에 전세 형태를 선호했다. 그러나 전세자금 마련을 위해서는 목돈이 필요한데, 월세를 내며 목돈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부모의 돈을 빌리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었다. 조사에 따르면 청년들의 70%가 부모로부터 전·월세 보증금을 지원받았고, 월세도 지원받는 비율은 65%로 나타났다(박미선 외, 2017). 이들 대부분은 비정규직이거나 임금 조건 등이 충족되지 않기 때문에 대출을 받기도 어려운 상황이었다. 유일한 방법은 상속받는 것인데, 이마저도 가구소유주는 남성이어야 한다는 사회적 신념에 따라 아들이 결혼할 때를 대비해 남겨두는 것이 보편적이다. 연구 참여자들 또한 남자 형제가 있는 경우 주택을 본인이 상속받을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다. 주위 여성들의 주거 불안정성을 목격하면서 이들은 미래에도 계속될 주거 불안정성에 대해 불안감을 느끼고 있었다.

가족 주거 공간에서 나와 독립 주거 공간에서 생활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불안정성에 노출되는데, 중립적으로 보이는 도시 공간은 사실 사회적 강자인 남성의 시각으로 구성되며 작동되기 때문이다(안숙영, 2011). 이는 자본주의적 도시 공간이 공적/사적, 생산/재생산 영역의 위계적 이원론을 전제로 하여, 성별 이분법과 결합해 여성을 위계가 낮은 곳에 위치시켜온 결과이다(이현재, 2012). 따라서 공적 공간에서는 주로 남성이 활동할 것으로 기대되고, ‘공적 공간의 남성화’(Rose, 1995)가

이루어져 여성들은 도시 공간을 사용할 권리를 상당히 제한받고 있다. 도시 공간의 생산 과정에서도 여성들은 충분한 의사 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이러한 젠더 편향성은 여성들이 불안, 두려움 등의 감정을 느끼게 한다. 연구 참여자들 또한 도시 공간에서 여성이 혼자 사는 것이 안전하지 못하다고 생각했고, 몇 명은 혼자 살면서 실제로 안전을 위협받은 경험이 있었다. 대부분의 연구 참여자들은 임대료만큼 중요한 것이 안전이라고 말했다. 특히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고시원 등 안전을 위한 장치가 적은 공간에서 거주한 경우 더한 불안감을 느꼈다.

일단 안전이 가장 중요하고... 아무래도 안전한 곳이, 가격이 좀 더 나가더라도 안전한 곳을 찾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바리맨, 창문 밖으로 보는 사람, 비밀번호 누르고 가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초등학교 바로 앞이었음에도 불구하고(연구 참여자 F).

되도록이면 1층은 안 하려고 하고, 가스관 같은 거나 벽에 발 디딜 것이 없는 곳으로 정했어요. 밝은 곳, 대로변 쪽으로 하려고. 비용이 더 들긴 하는데 위험한 것보다는 낫다고 생각해요. 일단 피해를 입고 나면 충격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으니까. 피해를 방지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했어요. 부모님도 그렇게 생각하시고요(연구 참여자 K).

이전에 살던 곳은 오피스텔이나 아파트처럼 관리되는 곳이었는데 1층이고, 들어올 때도 보안이 없으니 무서웠어요. 계단 보이고 해서 한 달쯤은 거의 잠을 자지 못했어요(연구 참여자 N).

독립적인 여성의 자취방은 젠더 편향적인 도시 공간의 일부이며, 쉽게 성적으로 대상화되고 범죄의 표적이 되고 있다. 사회적으로도 이에 대한 인식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도적 개선은 미비한 수준이



다. CCTV 설치 확대, 가로등 스위치 설치 등은 오히려 우범지역임을 의미해 여성들의 두려움을 배가시켰고, 여성 안심 택배 서비스와 2018년 도입 예정인 여성 안심 주택 등은 수혜자가 소수일 수밖에 없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두려움에서 벗어나 편안한 집을 조성하기 위해 연구 참여자들은 집을 구할 때 집세가 조금 더 비싸더라도 위치와 보안 시설 등 조건을 고려해 비교적 안전한 곳을 선택하려고 노력했으며, 안전장치를 추가로 구매하기 위한 비용 또한 부담해야 했다. 연구 참여자들은 사회의 절반을 구성하고 있는 여성들이 경험하고 있는 불안감이 있는데, 이를 개인이 부담하도록 만드는 국가에 대해 불만을 표했다. 남성보다 낮은 임금을 받으면서도 더 높은 월 임대료를 내야 하기 때문에 주거 불안정성이 상대적으로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들은 또한 다차원적으로 청년 여성을 주거불안계급으로 만드는 현 사회에 분노에 가까운 감정을 느끼고 있었다.

#### 4. ‘내 집’을 찾아서: 주거불안계급의 공간전략

이 절에서는 청년 여성들의 공간전략을 통해 주거불안계급의 주체적인 면모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들은 다차원적인 요인으로 인해 주거불안계급을 형성하고 있었으나, 자율성과 주체성을 잃고 불안정성을 내면화하는 단계에 머무르지 않았다. 각기 다른 방법으로 나만의 집을 찾고 만들기 위해 고군분투한 경험이 있었으며, 지속적으로 주거 안정성을 제고하고 안정적인 독립 주거 공간을 형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연구 참여자들은 주거 불안을 벗어나기 위해 이동 전략을 이용하거나, 단기 일자리를 이용해 일시적인 독립 주거 공간을 마련하기도 했다. 동거나 셰어하우스 등의 공동 주거를 선택하는 경우도 있었으며, 대안적이고 임시적인 장소 만들기 등 다양한 공간적 실천을 통해 주어진 상황에서 스스로의 삶을 재구성하고 있는 행위주체성

(agency)을 지닌 존재였다.

연구 참여자들이 독립 주거 공간을 마련하려는 시도를 하면, 여성이기 때문에 위험하다는 이유를 들어 가족이 이를 허락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이것은 표면적인 근거로 유일한 이유는 아니며, 혼자 사는 미혼 여성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의 인식이 이면에 있는 독립 불허의 근거이다.

부모님은 결혼 전까지 같이 살아야지. 하는 말을 많이 하셨어요. (제가) 나가 산다는 말을 하길 꺼리세요(연구 참여자 J).

자취 초반에 비용적인 문제나 여자 혼자 산다는 거리낌이 있었어요. 부모님께서 걱정을 많이 하셨어요. 안전과 자취생에 대한 편견이 있었거든요. (남자친구와) 동거를 한다 그런 이야기. 제가 동거를 한 것은 아니지만 괜히 이미지 나빠질까 봐 걱정을 하셨어요(연구 참여자 K).

혼자 사는 건 안 되니까 같이 살 사람 있으면 허락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인식이 혼자 살면 뭔가 남자를, 혹시라도 남자친구를 부를 것 같으니까. 아니면 위험한 것도 있으니까(연구 참여자 O).

연구 참여자들에게 독립 주거 공간이란 부모의 섹슈얼리티 규제가 약화되거나, 이 규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의미한다. 또한 부모와 물리적 접촉의 빈도가 감소함으로써 집안에서의 권력 관계에 의해 부과되는 감정 노동과 이로 인해 느끼는 불안정성의 정도가 감소할 수 있는 가능성이기도 하다. 결혼할 생각이 전혀 없는 청년 여성들은 오히려 자취 경험이 있는 것을 알려 결혼 시장에서 ‘상품성’이 떨어지길 바라기도 했다. 집안의 권력 관계를 벗어날 가능성을 실현하고 미래에 자력으로 독립 주거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이동 전략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았고, 어떤 경우에는 불안정성이 심화된 노동 시장에서

증가한 단기 시간제 근로 일자리를 이용했으며 당장 감당 가능한 고시원, 동거나 셰어하우스, 공동체 주택 등의 대안을 찾기도 했다.

일부 연구 참여자들은 일부러 학교나 직장을 멀리 잡는 등의 방법을 통해 독립 주거 공간을 마련하려는 시도를 했다. 이들은 다른 어떤 경우에도 완전한 경제적 독립과 부모와의 직접적인 충돌 없이는 본인만의 주거 공간을 형성할 수 없음을 알고 있었다. 유일하게 허용되는 것은 새로운 가정을 이루는 것이었지만 이들은 그 방법을 거부하고자 했다. 사회적 규범에 따라 이미 주어져 있는, 남성 소유 주거 공간의 일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거 공간 형성의 주체가 되려는 의지를 보였다. 게다가 금융 위기 이후 청년 여성이 정규직 노동시장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부모의 경제적 도움이 필요하다. 따라서 청년 여성이 부모에게 경제적 지원을 받으면서도 규제에서 비교적 자유로워질 수 있는 방법은 어쩔 수 없이 혼자 살아야만 하는 상황을 만드는 것이었다. 학교와 직장의 기숙사 이용으로 부모의 규제와 경제적 부담이 감소해, 본인의 심리적 부채감을 덜 수 있는 측면에서도 이득이었다. 또한 수도권 지역에 더 가까운 쪽으로 이동하는 것은 더 많은 기회에 대한 접근이 가능함을 의미했고, 이는 미래 설계 측면에서도 도움이 되는 방향이라고 판단했다.

고향에서는 제가 이상한 줄 알았어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그 공간에서는 이상한 것이었고 벗어나고 싶어서 조금 더 공부하고 싶어서 서울에 왔는데 잘한 것 같아요. ... 같은 애들이 같이 중고등학교 올라가고. 적당히 등록금 싼 국립 대학교 들어가서, 공무원 하면서 엄마 아빠 도와드리고. 집안일 도와드리고 그리고 적당히 괜찮은 남자 소개받아서 여기 정착하는 그런 삶을 살기 싫었거든요(연구 참여자 A).

대학을 일부러 멀리 잡았어요. 집에서 나오고 싶어가지고(연구 참여자 N).

3절 ‘3. 어디에도 없는 ‘내 집’: 주거불안계급으로 등장한 청년 여성’에서는 도시 공간의 안전 문제 때문에 혼자 살기 보다는 누군가와 함께 거주하는 방식을 선호하는 경우가 소개되었는데, 이는 혼자 사는 것보다 안전하다는 느낌을 주면서도 경제적 부담이 덜하다는 이점이 있기 때문이다. 최근 대학가에 아파트나 주택을 임대해 방을 각자 나눠 쓰고 부엌과 거실 등 공동 공간은 공유하는 셰어하우스의 주거 형태가 확산되고 있는데, 이동 전략을 이용했던 연구 참여자 중 일부는 셰어하우스 형태를 이용한 경험이 있었다. 셰어하우스 형태의 주거 공간은 사회적 관계를 쌓을 시간과 여유조차 없는 불안계급에게 새로운 사회적 관계를 비교적 쉽게 형성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해주는 장점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사회적 관계는 가족 주거지에서 경험하는 경제력에 의한 권력 관계와는 다른 수평적인 관계이며, 사회 규범에 따른 젠더 역할의 수행 요구도 없어 공동 공간을 공유하면서도 심리적 불안정성이 감소하는 효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

한편으로는 연인과 동거를 선택한 연구 참여자도 있었는데, 이러한 경우는 셰어하우스와 비슷한 이유로, 안전성 제고와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시작했으나 완전히 다른 시선을 경험해야 했다.

엄마랑 갈등이 너무 심해서. 시험 같은 문제로 계속 얘기하고, 엄마가 오빠 편을 너무 많이 드니까. ... 핍박을 하니까 나갔어요. 그런데 마침 남자친구가 있어서. 안정적인 사람하고 안정적으로 살기 위해서. 집이 안정적이지 못하니까. ... 그런데 젊은 여자가 혼자 낮에 집에 있으니까 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연구 참여자 I).

가족 주거지에서 차별과 갈등, 독립 요구 등으로 인해 심리적으로 극심한 불안감을 경험한 연구 참여자 I는 남자친구와 동거를 시작했다. 그러나 법적으로 부부 관계인 경우 출산을 위한 성관계만을 인정하는 보수적인 한국 사회의 성 규범에서 남자친구와 ‘동거’하는 것 같

은 여성은 혼자 사는 여성보다도 성적으로 더욱 문란하다는 사회적 낙인이 짙히고, 부정적 시선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이웃 주민들의 시선을 감내하면서 지속한 동거 생활은 또다시 경제력에 의한 권력 관계가 가시화되면서 끝났다. 남자친구가 전적으로 주거비를 부담하면서 의견 충돌이 있을 때 주거 공간에서의 주체가 될 수 없음을 느낀 I는 본인이 주체적으로 형성한 주거 공간의 필요성을 느꼈고 현재는 가족 주거지에서 생활하면서 독립 주거 공간 마련을 위해 돈을 모으고 있다.

부모의 지원을 아예 받지 못하거나, 지원을 받게 된다면 독립 주거 공간을 마련한다고 하더라도 부모의 규제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시간제 근로 일자리나 단기 일자리를 이용해 독립 주거 공간 마련을 직접 실행하기도 했다. 대학생의 경우 시간제 근로를 이용하거나, 휴학 기간에 단기 일자리를 구해 주거비를 충당했다. 증가한 노동시장의 불안정성은 단기 일자리가 필요한 이들에게 자격증이나 경력 등이 없이도 쉽게 얻을 수 있는 임시직의 증가로 좀 더 많은 기회를 제공했다. 이 기간은 정신적으로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나, 일시적으로만 유지 가능하다는 한계가 있었다. 연구 참여자 F는 높은 월세를 지속적으로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다시 집으로 돌아가야만 했고, 학생 신분으로 마련할 수 없었던 보증금을 내기 위해 대학생 신분을 이용해 한국장학재단에서 생활비 대출을 받았는데, 이를 갚기 위해 시간제 근로에 지속적으로 종사하다 보니 결과적으로 좋지 못한 성적을 받아 결과적으로 취업이 어려워졌다. 그러나 독립 주거 공간을 마련하고자 하는 의지에는 변함이 없어 시간제 근로와 취업 준비를 병행하고 있다.

연구 참여자들이 마지막으로 취했던 전략은 주거 공간 외부에서의 장소 만들기로, 집 밖에서 주거 공간의 역할을 할 대안적 공간을 만드는 것이었다. 동아리나 소모임 등의 공동체를 형성해 공동체 소유 공간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었고, 모임을 통해 일시적으로 점유한 공간에

서 집의 기능을 제공받는 경우도 있었다. 일부 연구 참여자들은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특정 카페나 PC방 등의 공간을 주기적으로 이용했는데, 돈을 지불하고 일정 시간 동안 일정 공간을 이용할 권리를 구매함으로써 주거 공간 내부 권력 관계에서 벗어나 심리적 안정감과 소속감을 찾았다. 연구 참여자 A와 E는 주기적으로 만나는 공동체를 통해 소속감과 편안함, 안정감을 느끼고 있었는데, A는 ‘인간관계가 집 같은 역할을 하는 것 같다’고 표현했고 연구 참여자 E는 ‘마음의 안식처’라고 표현했다.

21세 때부터 서울에 오면서 모임을 몇 개 이상 들었어요 계속... 스티디 모임이 제일 오래 가는 것 같아요. 처음엔 자기관리 모임이라 해가지고 영어 아님 다이어트. 문화생활 포함해서. 하고 싶어 하는 영역 별로 스스로 계획을 짜서 매주 발표하는 거예요. 몇 퍼센트 지켰는지. 같이 즐기기러 가고 술도 먹고 밥도 먹고 다이어트 같은 경우에는 식단 운동 공유하고. 1년 동안 했어요. 소속감을 느낄 만한 사람들이 없어서, 너무 행복한 거예요 제가. 너무 즐겁고. 최근에 두 개를 더 들었는데 그 두 모임도 굉장히 행복하게 다니고 있습니다. 좋아질 것 같아요, 갈수록... 인간관계가 집 같은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한 사람한테서 다 채울 수는 없고 여러 사람들의 성향들을 다 합치면. 확실히 부모님보다 훨씬 좋죠(연구 참여자 A).

앱을 통해 알게 된 비혼 여성 소모임이 있어서 들게 됐어요. 실제로 나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 모여 있어요... 비혼을 결심하면서 같이 오래 지내보자라는 취지로. 한 달에 한 번씩 정모 있고 이외에도 만남을 가져요. 거기 있는 것이 제일 좋아요. 제일 말도 잘 통하고. 비혼(소모임) 일원이라는 이유만으로 되게 유대감이 생기고 마음의 안식처죠. 소속감을 느끼고 편해요(연구 참여자 E).

연구 참여자 중 다수가 카페를 대안적 공간으로 이용했는데, 음료 값을 지불하면 냉·난방비를 걱정하지 않고 쾌적한 환경에서 보장된 일정한 공간을 편안히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최근 수년간 한국의 거리에서 카페가 점차 증가하게 된 경관 변화와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시간 단위 이용료가 비교적 저렴한 PC방을 대안적 주거 공간으로 이용하는 경우도 있었다.

최대한 밖에 나와 있는 편이에요. 보통은 나와서 가는 곳이에요. PC방을 제일 많이 가는 것 같아요. 요새는. 뭘 짓을 하고 있어도 신경 쓰는 사람이 없으니까. 좋아요. 카페 같은 데는 오래 있으면 눈치 보이고 그렇잖아요. 저는 게임을 하기 때문에. 끼니도 해결할 수 있고. 시간도 보낼 수 있고. 하루 종일 있을 때도 있어요. 제일 오래 있었던 건 한 일곱 시간? 있었어요. 제일 저비용으로 긴 시간 있을 수 있는 곳이니까(연구 참여자 B).

카페를 자주 갔죠. 특히 여름에. 냉방비 걱정 안 해도 되고. 다른 사람 신경 안 써도 되고(연구 참여자 L).

이러한 대안적 주거 공간은 물리적으로는 일반적으로 인식하는 집의 형태를 갖춘 공간이 아니다. 이로써 연구 참여자들에게 주거 공간은 단순히 물리적 주거 공간이 아님을 알 수 있다. Waldron(1991)은 사적 공간이 자아 성찰을 위한 공간을 제공해 공공의 시선으로부터 해방되어 개인의 목표나 계획을 세우거나 발전시키는 데 집중할 수 있도록 기능한다고 보았는데, 이처럼 권력 관계와 심리적 불안정성을 벗어나 심리적 안정감을 느끼고 자신에게 집중할 수 있는 주거 공간이 청년 여성들에게 필요한 것이다. 청년 여성들은 새로운 사회적 관계를 찾아 일시적으로나마 심리적 안정감과 소속감을 제공하는 공간을 스스로 조성해 더 나은 삶을 모색하고 있었다. 이러한 대안적 주거 공간에서 안정감과 소속감을 경험한 이들은 더욱 독립 주거 공간의 필요

성을 느꼈고, 이 경험은 자기계발에 대한 동기를 부여함으로써 긍정적으로 기능했다. 청년 여성들이 심리적 안정감을 느끼고 자신에게 집중할 수 있는 독립 주거 공간에 대한 요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5. 결론

본 논문은 신자유주의로 인한 경제적 불안정성 증가와 한국의 맥락이 결합되면서 한국의 청년 여성들이 주거불안계급을 형성하게 되었으며, 이들이 이러한 상황에서도 독립 주거 공간을 형성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다양한 공간전략을 구사하는 주체성을 보이고 있음을 주장한다. 이를 위해 청년 여성들의 주거 경험을 불안계급 개념을 통해 분석했으며, 결과적으로 유교와 가부장제가 뿌리 깊은 한국의 역사적·문화적 맥락에서 젠더가 불안계급 형성에 중요한 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들은 금융 위기 이후 악화된 경제 상황과 노동시장의 젠더 편향, 남성화된 도시 공간, 주거복지 정책에서의 소외 등의 영향을 받아 편안한 본인의 ‘집’을 찾을 수 없는 주거불안계급을 형성하고 있다. 그러나 청년 여성들은 한편으로는 주어진 상황에서 더 나은 삶을 위해 이동 전략, 공동 주거, 장소 만들기 등의 공간전략을 이용하며 독립 주거 공간의 형성을 시도하는 주체적인 존재이다.

그동안 불안정성 및 불안계급 논의에서 주변부에 머물렀던, 젠더에 의해 달라지는 주거 불안정성의 양상을 드러냄으로써 본 연구는 주거 불안정성의 의미와 주거불안계급의 대상 확장이라는 학문적 함의를 지닌다. 현재까지 주거 불안정성은 주로 경제적 불안정성의 확산으로 인한 물리적 주거의 불안정성을 의미했다. 본 논문은 청년 여성을 사례로 주거불안계급의 형성을 살펴봄으로써 주거 공간에서의 권력 관계를 드러냈고, 권력 관계에 의한 심리적 불안정성이 주거불안계급 형



성의 요인이 될 수 있음을 보였다. 또한 일상에서 공간적 실천을 수행하는 주거불안계층의 주체성을 경험적으로 탐색했다는 점에서 정치적 주체 형성 가능성에 대한 이론적 논의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갔다는 함의를 지닌다.

본 연구는 주거복지 정책 등 사회복지 정책에 성인지적 접근의 필요성 제시라는 실천적 함의를 지닌다. 여전히 청년 여성의 불안정성 문제에 대한 논의는 사회적·정책적으로 주변에 머무르고 있다. 국가에서는 청년 여성을 ‘미혼(未婚)’ 여성, 즉 아직 혼인하지 않은 여성이므로 임시적인 상태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최근 발표된 주거복지 로드맵에는 여성안심주택이 포함되어 있으나, 이 역시도 물리적인 주택 공급에 중점을 두며, “로드맵의 실현을 통해 청년 취업 → 결혼 → 출산(국토교통부, 2017)”으로 이어지는 결과를 기대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러한 주거복지 정책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현대 사회의 가족 형태는 전 지구적 경제·사회 변화로 인해 바뀌고 있고 더 이상 정상 핵가족 규범은 유효하지 않다. 하지만 소득이 낮고 결혼과 가족을 통해 자본을 형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목돈 마련 자체가 불가능하고, 대출도 어려워 악순환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금융위기 이후 지속적인 주거비 상승으로 이들에게 지속 가능한 주택의 임대 또한 어려울 것이다.

주거 불안정성이 존재하는 이상 청년 여성들의 정체성 및 자아실현과 시민 주체로서의 성장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사회 제도 및 정책 제반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으나 현행 주거복지 정책은 인구·사회적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청년 여성이 혼자 거주하는 집을 임시적 거처로 인식하는 정책적 방향은 바뀌지 않고 있으며, 청년의 절반, 취약계층의 2/3 이상이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기혼 혹은 결혼할 여성만을 복지 대상으로 상정하는 경향은 점점 더 많은 청년 여성들이 소외감을 느끼는 원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오히려 이들의 생활 안정성을 저해해 결혼에서 더욱 멀어지게 하기도 한다. 따라서 청년 여

성 가구의 불안정성을 방임하는 처사는 미래에 만성적인 여성 주거 빈곤이라는 사회적 문제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음을 인식하고, 이에 대비하기 위해 주거복지 정책에 성 주류화 제도가 조속히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

원고접수일: 2018년 7월 31일

심사완료일: 2018년 8월 18일

게재확정일: 2018년 8월 27일

최종원고접수일: 2018년 9월 1일

❖ Abstract

Making “My home”:  
spatial strategies of young women as housing precariat

Gwon, Minji

The concept of precariat suggests the possibility of the formation of a new political subject by designating unstable workers as one class and highlights the psychological aspects linked to job market instability. However, not enough attention has been paid to gender as a cause of precariat formation, and subjectivity of the precariat has been overlooked. This paper contributes to current discussion by employing the concept of precarity and precariat to analyze housing experiences of Korean young women and investigates major factors in forming housing precariat, aspects of housing precarity, and their spatial strategies. In this paper, housing precariat is defined as a group that experiences the absence of housing space where one can feel comfortable and secure, with privacy protected, and can focus on self-improvement without interruption, regardless of the existence of physical dwelling space. The combination of growing economic precarity caused by the diffusion of neo-liberalism and the patriarchal historical and cultural context of Korea creates housing precariat among young women in South Korea. However, in Korean society where normative life course, such as marriage, is taken for granted, housing precarity of young women is regarded as a temporary problem and remains on the fringe of housing welfare policy. Despite the given set of circumstances, they try to improve housing stability by implementing diverse spatial strategies such as migration strategies, communal housing, and alternative place-making. This paper expands the understanding of housing precarity of Korean young women, which has been at the periphery of the discussion and suggests the need to introduce gender mainstreaming in residential welfare policies.

Keywords: precariat, housing precariat, spatial strategy, youth, female

참고문헌

- 곽노완. 2013. 『노동의 재구성과 기본소득』. 《마르크스주의 연구》, 10(3), 94~114쪽.
- 국토교통부. 2017. 『사회통합형 주거사다리 구축을 위한 주거복지로드맵』.
- 김두나. 2008. 『‘홈리스’ 여성을 찾아서』. 《환경과생명》, 56, 166~176쪽.
- 김정선. 2012. 『필리핀 결혼이주여성의 변화하는 ‘home’의 의미와 시민으로 주체되기』. 《여성학논집》 29, 61~105쪽.
- 김혜영·선보영·진미정·사공은희. 2007. 『비혼 1인 가구의 가족의식 및 생활실태 조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노미선. 2008. 『고학력 30대 비혼여성의 성별/나이의 위치성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여성학과 석사학위논문.
- 박미선. 2017. 『한국 주거불안계급의 특징과 양상: 1인 청년을 중심으로』. 《공간과 사회》, 27(4), 110~140쪽.
- 박미선·강미나·임상연. 2017. 『1인 청년가구를 한 주거복지 정책 방향』. 국토연구원.
- 박인권. 2017. 『도시의 사회적 약자 불안정화 과정: 불안계급 이론의 비판과 확장』. 《공간과 사회》, 27(4), 36~78쪽.
- 백미록. 2015. 『주거 불안을 통해 본 20, 30대 비혼 여성의 주체성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여성학과 석사학위논문.
- 송계숙. 2010. 『혼자 살아가기: 비혼여성, 임대주택, 민주화 이후의 정동』. 동녘.
- 신경아. 2016. 『여성노동시장의 변화에 관한 여덟 가지 질문』. 《페미니즘 연구》, 16(1), 321~359쪽.
- 신혜란. 2017. 『이동통치와 불안계급의 공간전략』. 《공간과 사회》, 62, 9~35쪽.
- 안숙영. 2011. 『젠더와 공간의 만남을 위한 시론』. 《여성학연구》, 21(2), 7~37쪽.
- 양동욱. 2015. 『성행동 상황에서 여성의 거절 이유 평가의 성차』.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20(2), 205~224쪽.
- 이광일. 2013. 『신자유주의 지구화시대, 프레카리아트의 형성과 ‘해방의 정치’』. 《마르크스주의 연구》, 10(3), 115~143쪽.
- 이삼식. 2015. 『2015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순미. 2015. 『외환위기 이후 노동시장의 성불평등』. 《한국여성학》, 31(2), 91~129쪽.
- 이영아. 2017. 『불안 공간과 도시 빈곤층의 불안한 삶』. 《공간과 사회》, 62, 79~109쪽.
- 이현재. 2012. 『여성 “공간”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젠더와 문화》, 5(1), 41~69쪽.
- 장봄·천주희. 2014. 『안녕! 청년 프레카리아트』. 《문화과학》, 78, 57~72쪽.

- 조순경. 2011. 『노동의 유연화와 가부장제』. 푸른 사상사.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8. 『2017년 성별임금격차 변화와 여성 내 임금 불평등 경향 분석』.
- Banki, S. 2013. "Precarity of place: A complement to the growing precariat literature." *Global Discourse*, 3(3-4), pp. 450~463.
- Castells, M. 1977. *The Urban Question: A Marxist Approach*. Cambridge, MA: MIT Press.
- Choi, S., Yang, D., & Youn, G. 2015. "Late adolescents' perception of their peers who report a large number of sex partners." *Psychology and Behavioral Science*, 4, pp. 1~4.
- Colic-Peisker, V., Ong, R., & Wood, G. 2015. "Asset poverty, precarious housing and ontological security in older age: an Australian case study." *International Journal of Housing Policy*, 15(2), pp. 167~186.
- Finnerty, J. and O'Connell, C. 2017. "Changing precarities in the Irish housing system: supplier-generated changes in security of tenure for domiciled households." *Global Discourse*, 7(4), pp. 473~488.
- Foti, A. 2004. "Precarity and N/european Identity. Interview with Merjin Oudenampsen and Gavin Sullivan." *Greenpepper Magazine*.
- Frase, P. 2014. "The Precariat: A Class or Condition?" *New Labor Forum*, 22(2), pp. 11~14.
- Greenop, K. 2017. "Understanding housing precarity: more than access to a shelter, housing is essential for a decent life." *Global Discourse*, 7(4), pp. 489~495.
- Janelli, R. and D. Janelli. 1992. *Ancestor worship and Korean society*. Stanford University Press.
- Johnston, L. and G. Valentine. 1995. "Wherever I lay my girlfriend, that's my home." *Mapping desire: Geographies of sexualities*, pp. 99~113.
- Köppe, S. 2017. "Britain's new housing precariat: housing wealth pathways out of homeownership." *International Journal of Housing Policy*, 17(2), pp. 177~200.
- Lewis, H. et al. 2015. "Hyper-precarious lives: Migrants, work and forced labour in the Global North." *Progress in Human Geography*, 39(5), pp. 580~600.
- Mitchell, K. 2000. "The culture of urban space." *Urban geography*, 21(5), pp. 443~449.
- Neilson, B. and Rossiter, N. 2008. "Precarity as a Political Concept, Or, Fordism as Exception." *Theory, Culture & Society*, 25(7-8), pp. 51~72.
- Pitrou, A. 1978. *La vie précaire, des familles face à leurs difficultés*. Paris, France: Études CNAF.
- Rose, G. 1993. *Feminism & geography: The limits of geographical knowledge*.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 \_\_\_\_\_. 1995. "Place and identity: a sense of place." *A Place in the World*, pp. 87~132.
- Song, J. 2010. "'A room of one's own': the meaning of spatial autonomy for unmarried women in neoliberal South Korea." *Gender, Place & Culture*, 17(2), pp. 131~149.
- Standing, G. 2011. *The Precariat: The New Dangerous Class*. London: Bloomsbury Academic.
- \_\_\_\_\_. 2012. "The Precariat: From Denizens to Citizens?" *Polity*, 44(4), pp. 588~608.
- Waite, L. 2009. "A Place and Space for a Critical Geography of Precarity?" *Geography Compass*, 3(1), pp. 412~433.
- Waldron, J. 1991. Homelessness and the Issue of Freedom. *UCLA L. Rev.*, 39, p. 295.
- White, N. R. 2002. "'Not Under My Roof!' Young People's Experience of Home." *Youth & Society*, 34(2), pp. 214~231.

<기사>

- 《국민일보》. 2017.12.21. "특정인 접수 조작·전형 바꾸기도 ... 30명 기소".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870365&code=11131900&cp=nv>(검색일: 2018.6.30)